

믿음으로 내려 놓는 삶을 살라

제1과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8-9페이지에 나와있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아기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그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취한 행동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를 깨닫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감한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도전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출애굽기 2:1~10

묵상의 말씀 :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3절)

찬송 : 400장(통 463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죽을 뻔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간단히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서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오늘 말씀은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모세의 탄생과,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애굽 왕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히브리인들의 인구 급증을 두려워한 애굽 왕 바로는 새로 태어난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출 1:15-22). 아기 모세가 성장해 가면서 더 이상 그를 집에 숨겨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를 계속 집에서 키우게 되면 발각되어 아기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물에 내려 놓는다. 그 후 아기 모세는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 왕의 딸에 의해 발견되어 그녀의 양자가 되고, 애굽의 왕자로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도움말 :

- 레위 가족 중 한 사람(1절):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사람의 이름은 ‘아므람’이다. 그의 아내는 요게벳이며, 자녀로는 장녀 미리암과 둘째 아론과 막내 모세가 있다(민 26:59; 대상 6:3 참조)
- 잘 생긴(2절, 히: 토브): 히브리어 ‘토브’는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 외에도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 보고(2절, 히:왓테레): 알다, 생각하다, 깨닫다.
- 갈대 상자(3절, 히: 테밋 고메):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 상자에 해당하는 ‘테바’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외에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특별한 단어이다. 모세를 위해 만든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의 구원을 위한 또 다른 방주였던 것이다.
- 역청(3절): 도로 포장이나 방수 재료로 사용되는 ‘콜타르’이다. 고대 애굽인들은 이것을 시체의 방부제로도 사용했다.
- 모세(10절, 히: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주의하면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

1. 【관찰 질문】 아들을 출산한 레위 지파 출신의 부부는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1-2절)

부부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다. 참고로, 성경에는 특별히 엄마인 요게벳이 아이를 숨겼다고 되어 있다.

【해석 질문】 아이의 부모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가족 전체가 위협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도움말, 행 7:20 참조)

부모들은 분명히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이 언급도 하지 않고,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달 동안 숨겼다고 기록한다. ‘잘생겼다’는 말의 히브리어 ‘토브’에는 잘생겼다는 의미 외에,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도행전 7:20에는 “아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부모들은 아기 모세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에 석달 동안이나 목숨을 걸고 숨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거울 질문】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를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혹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만나면 낙심과 절망을 하기가 쉽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를 깨닫게 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나누어 보자.

2. 【관찰 질문】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부모는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어떻게 했습니까?(3절)

갈대로 만든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아기를 그 안에 누이고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

【해석 질문】 아기의 부모들은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도움말 참조)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바’는 오늘 본문과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창 6:14; 7:1; 9:10) 외에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특별한 단어이다. 모세를 위해 만들었던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의 구원을 위한 방주였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기의 부모들이 포기하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갈대 상자가 아이를 구원해 주는 방주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그들은 아기의 누이로 하여금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 보게 했던 것이다(4절).

【거울 질문】 어떤 소중한 일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겼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 나누어 보자.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가 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다. 시편 46편의 기자가 쓴 것 같이 말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어다...”(10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나누어 보자.

3. [관찰 질문] 나일 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애굽 왕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와 그 안의 아기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5-8절)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바로의 딸은 시녀를 보내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우는 아기를 보게 되었고,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아기의 누이인 미리암은 그 공주에게 다가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유모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주는 미리암의 제안을 승낙하고 미리암이 데리고 온 아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게 하고, 돈을 주며 아이를 키우게 한다.

[해설 질문]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왕의 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배경 설명 참조)

공주의 아버지인 바로는 히브리 남아를 모두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딸인 공주는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히브리 아기를 보며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가 키우게 했다. 그녀는 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이다. 참고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아기 모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생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다.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애굽의 궁정에서 최고의 학문과 풍습을 배우면서도,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돌아볼 수 있었다(행 7:22-23).

[거울 질문]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안개 같이 희미한 인생 속에서 인생의 등불과 길잡이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건강, 재정, 인간 관계 등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많은 경험들을 하곤 한다. 그런 경험들을 할 때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경험들을 나누면서 피차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자.



말씀 살기

*인도자는 아래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각자가 나눈 후에는 그 말씀을 한 주간 매일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자.

1.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갈대 상자에 내려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내려 놓는 믿음을 훈련해 봅시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 힘만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내려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내려 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자녀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사업, 승진 등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한 주간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보자.

2.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간단히 나누어 보고, 우리 소그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그러한 성도를 만나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동시에 적합한 성경 구절을 통해 힘을 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좋은 신앙 간증집이나 신앙 서적을 선물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혹시라도 그 성도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 않다면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하여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